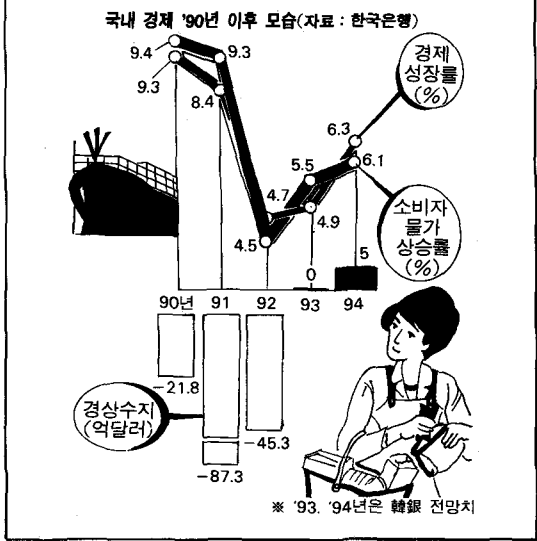


# 국내 경제전망



## 국내 경제, 실질성장률 6.3%

물가불안 속의 완만한 경기회복과 높은 실업률

국내 경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실업률은 3.0%로 87년(3.1%)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1% 내외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94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이 6.3% 안팎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보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1%로 「안정성장」을 방해하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어, 경제운용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銀은,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항목중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설비투자는 '92년도에 이어 '93년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새해에는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서 5.8% 증가할 것같고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경상수지는 5억

달러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버스 및 택시요금과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이어 철도(9.8%)·우편(9%) 국립대 납입금(7%)·고속도로 통행료(6.4%)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도사리고 있는데다 유류 특별소비세 인상 등이 물가를 부추켜 정부의 억제선인 5%를 훨씬 넘은 6.1%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韓銀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새해 임금상승률이 「공통분담」을 내세우며 억제했던 '93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새해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욕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어서 실제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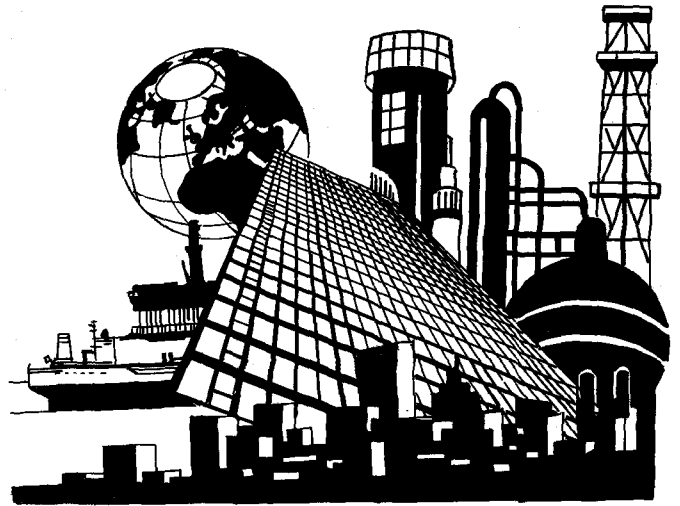
韓銀 역시 새해 임금상승률은 실업률이 '93년도 2.8%보다 0.2% 포인트 더 높아진 3.0%(61만 4천명)로 '87년도 이후 처음으로 3%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기대심리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등에 의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93년도(5.4% 증가)보다 다소 늘어 5.6% 증가

하며, 상품수출은 7.0%, 상품수입은 6.3% 증가할 것으로, 생산자물가는 '93년도 1.8%보다 높은 2.3%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가 '90년 이후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외국 돈이 훨씬 많이 들어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우리 돈 가치를 높여 수출상품 가격을 올림으로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전보다 더욱 세심한 통화·환율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높아지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우리 경제의 이 같은 회복국면이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술력·생산성 향상이라는 자생적 요인이라기 보다 상당 부분이 엔高 등 외생적 변수에 따른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므로 목표치를 밀도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구조 조정과 체질개선에 더욱 힘써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韓銀 김시담 조사담당 이사는 「과거 경기회복은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활성화대책에 의해 시작되는게 보통이었으나 최근 우리 경제가 자생적인 복원력을 되찾아 회복추세로 돌아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초래될 물가를 잡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다음 「회복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정부정책 등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성장률과 경상수지, 물가는 경제정책이 3대 목표이지만 이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힘들다.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를 쫓다보

면 다른 두 가지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韓銀이 제시한 전망이 맞아 떨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세 가지중 물가를 제외한 성장률과 경상수지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韓銀 · KDI 경제전망

(단위 :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한 국 은 행		K D I	
	'93년	'94년	'93년	'94년
경 제 성 장 른	4.9	6.3안팎	4.5	6.5~7.2
민 간 소 비	5.4	5.6	5.1	5.4
고 정 투 자	2.5	6.2	1.0	-
건 설	5.1	6.5	4.0	6.5~7.5
실 비	-0.5	5.8	-2.4	0.6~4.5
상 품 수 출	8.2	7.0	9.4	-
상 품 수 입	4.0	6.3	3.4	-
경 상 수 지 (억달러)	0	5 안팎	-1	21~22
무 역 수 지 (억달러)	18	24	21	44
생 산 자 물 가	1.8	2.3 안팎	1.6	-
소 비 자 물 가	5.5	6.1 안팎	5.4	5.4~5.6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93년도보다 15.3% 증가한 14조6백5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이중 약 13조원에 해당되는 물량이 공공부문에서 수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상업용·건설의 위축이 예상되는 건축공사는 29조 7천8백50억원으로 '93년도보다 1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공사실적의 예고지표인 민간건축 허가면적이 주거용은 '93년도보다 0.7% 감소한 6천5백42만㎡, 비주거용은 2.

■정부예산에 나타난 주요 토목사업

구분	금액
도로	2조 8천 3백 96억원
철도	1조 3천 5백 60억원
지하철	6천 5백억원
공항·항만	7천 4백 62억원
다목적댐	3천 9백 20억원
공업단지조성	9백 34억원
농림생활기반 시설및유통시설	1조1천3백22억원
상수도 및 수질보전	3천 4백 94억원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

신기로 장수

「신 기리오?」

현재는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거리의 한 귀퉁이에 앉아 다른 사람의 신을 기워 주며 돈을 버는 사람을 「신기로 장수」라고 했다.

지금은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손만 놀려 돈벌이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 일일이 큰 소리를 질러야 했었다.

「신 기리오? (신을 김으세요?)」

떨어진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에게 신을 기워 신이라는 뜻이다.

바로 그 말이 줄어 「신기로」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신기로 장수라고 불렀다고 한다.

9% 증가한 4천6백39만㎡로 '93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1천1백81만㎡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94년도 건설경기 분야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94년도 건설경기 전망

구분	단위	'92년		'93년(P)		'94년(E)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건설공사계약액	억원	335,104	2.2	388,890	16.1	438,500	12.8
공공	〃	141,354	14.3	159,290	12.7	181,100	13.7
민간	〃	193,750	-5.1	229,600	18.5	257,400	12.1
토목	〃	118,100	40.2	121,940	3.3	140,650	15.3
건축	〃	217,004	-10.9	266,950	22.8	297,850	11.6
○건설공사기성액	〃	395,294	26.3	411,307	4.1	471,300	14.6
○건축허가면적	천㎡	94,647	-10.0	111,000	17.3	111,820	0.7
주거용	〃	54,713	-7.4	65,900	20.4	65,420	-0.7
비주거용	〃	39,934	-13.4	45,100	12.9	46,400	2.9